
석사학위 청구논문

직업윤리교육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양 방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강 원 일

1996 年 8 月

직업윤리교육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양 방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6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출자 강 원 일



강원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1996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안 창 범 
심사위원 허 근 동 
심사위원 강 원 일 

<국문초록>

직업윤리교육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 원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직업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생계유지 수단이며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직업을 바르게 선택하고 개인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해 어떤 의식과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직업윤리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직업윤리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그 방안으로 현행 직업윤리교육을 개선·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윤리 교과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고,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일반 교양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에서는 직업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직무교육이나 기업에서 행해지는 정신교육 등이다. 이러한 현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은 교육기회의 부족과 비체계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내용, 지식위주의 이론 강의, 교재 개발과 강사 문제, 그리고 교육체계와 사회분위기 등에서 야기되는 직업윤리에 대한 무관심과 의식의 약화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윤리교육의 강화 방안은 첫째, 직업윤리교육의 목적과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다.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사회윤리와 진로지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루어 과정을 필수화 하며 사회에서는 단순히 회사 경영 차원의 정신교육이나 노사관계교육으로서가 아

니라 직업과 직장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직장을 통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시수를 확대하고 내용은 윤리적 성격을 중시하여 직업인으로서 직업과 사회적 영향을 조화있게 강조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직장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 등 공동체 생활의 윤리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학교와 사회의 특징을 살리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의 방법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방법들을 교육의 내용과 환경에 맞게 그 장단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가치판단 능력, 가치관의 실천분야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되 가급적 탐구식 기법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보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윤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립하여 교재연구·편찬, 방법개발, 담당자의 연수, 강사의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교육관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직업윤리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의 관리자나 기업의 경영자들은 직업윤리교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직업윤리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II. 직업윤리교육의 배경과 의의	5
1. 직업	5
2. 직업윤리	10
3. 직업윤리교육	14
III. 직업윤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1
1. 직업윤리교육의 현황	21
2.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	28
IV. 직업윤리교육의 강화 방안	33
1. 목적과 위상의 정립	33
2. 교육내용의 체계적 편성	36
3. 실질적 교육방법의 개발	41
4. 제도의 보완과 환경의 개선	46
V. 결 론	46
참 고 문 헌	49
Summary	56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을 획득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회 속에서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의무를 실현해 나간다. 이러한 노동은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계약과 제도화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이 직업이다. 이러한 직업은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와 세분화되고 다양해 졌으며 구조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직업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생계유지 수단이며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업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직업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현대인은 직업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직업의 유무와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의 무엇이나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현대사회는 산업화를 통하여 형성·발전되었다. 산업화에 의하여 직업세계가 다양해졌고 그러한 직업생활에 의해 산업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는 더욱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과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선택되거나 주어진 직업에 대해 어떤 의식과 의무감을 갖고 어떻게 일을 수행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직업윤리의 과제이다.

직업윤리는 직업의 바른 선택과 그 바람직한 수행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

제에 대하여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그 근거와 해결방안(행위규범)을 제시한다. 이는 직업생활을 토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사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현대인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유지·발전될 수 있는 현대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직업윤리가 바로 정립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삶이나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소위 3D 기피현상이라는 잘못된 노동의식과 노동자체를 경시하여 놀고 먹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졌다 하여도 만족하지 못하여 기회가 주어지면 약간의 불만이나 약간의 혜택으로도 쉽게 옮기는 철새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인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면에서 보면 특히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진전되므로 해서 직업의 전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문 직업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여러 전문분야에서 적당주의가 팽배하거나 오히려 그 분야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사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세금비리, 증권거래 중개자의 주가 조작, 상인들의 매점매석,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등과 같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직분수행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천직의식·소명의식이 결여된 전문분야의 직업인들로 인하여 사회전체에 불안과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대인관계를 보면 친 인척이 멀어지고 이웃

이 멀어지는 반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같은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내부적으로 보면 같은 직종간의 대립·갈등, 경쟁이 지나친가 하면 직장에서 상하·동료간의 인간관계나 직무와 관련된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여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 또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양상의 노사분규가 일어나므로써 일개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은 농업위주의 단순한 직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과 직업에 관한 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립·조성되지 못한 점, 직업에 관한 윤리적 덕목의 생활화 같은 실천능력의 결여 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저절로 충족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윤리교육에 의하여 의식과 행위를 전환시키고 키워나가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러한 일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롭게 직업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대처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직업윤리의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직업과 직업윤리·직업윤리교육에 대한 기존 학설을 검토하여 체계화하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직업윤리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끝으로

이를 토대로 직업윤리교육의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한다 함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내실화·효율화를 이루는 것과 지금까지는 실시되고 있지 못한 분야에 까지 확대·실시하는 것, 그리고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 중에는 첫번째 내용이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 교육체계의 틀 속에서 어느 하나만을 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급격히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직업윤리교육의 강화는 첫째, 직업윤리교육의 목적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 둘째, 교육내용을 이념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간에 연계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전체 내용을 체계화 시키는 것, 셋째, 가치(관)교육과 행동교육에 맞는 실질적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 넷째, 직업윤리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총체적인 방침을 설정하고 다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서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특히 구체적 방안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강구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체제 내에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직업윤리교육의 배경과 의의

1. 직업

1). 직업의 개념

직업은 인간활동의 하나이며 매일 이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인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의식주의 밑천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 의미에서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보수를 얻기 위한 계속적인 인간활동이다'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은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이 형성하는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 물론 그것은 직업의 종류나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여러 가지로 시행되지만 결국 그것이 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의미에서 직업은 '일정한 사회적 분담 또는 사회적 역할의 지속적 수행' 이라고 할 수 있다.¹⁾

직업의 의미를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에서 직업은 신에 봉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일생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²⁾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부름(BERFUNG)이란 측면의 직업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

1) 尾高邦雄, 「일본인의 직업윤리」, 광창신 역(199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1-4.

2)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권세원, 강명규 역 (1958), 일조각, pp. 66-79.

되어 가고 있다. 어원적으로 직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직업을 영어로 VOCATION 또는 CALLING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VOCARE 에서 유래된 말이다. VOCARE란 “부른다” 라는 의미로 앞서 종교적 의미의 직업과 어원적인 의미의 직업이 모두 “신의 소명” 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자말의 직업이란 단어에서 ‘職’ 이란 생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란 천직과 생업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 이상의 종교적, 어원적 정의와 현재 대부분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들은 직업의 의미를 대체로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의 분담 및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어느 정도 계속적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직업을 위와 같이 파악할 경우 직업에는 경제적 측면의 생계유지와 사회적 측면의 역할 분담, 개인적 측면의 자아실현 등 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생계유지

단순히 의식주의 밑천을 얻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맞다. 이러한 인간 생존을 위한 활동은 어떠한 미개사회에서도 존재한다.⁵⁾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활동의 대가인 물질적인 보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업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직업이 가지는 다른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됨으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직업을 보는 것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⁶⁾

3) 尾高邦雄 (1941), 「직업사회학」, 岩波書店, pp. 17-22.

4) 이한구 (1985), 「직업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36.

5) 이규천 (1990), 「직업윤리」, 형설출판사, p.10.

6) 진교훈 (1963), 「직업윤리 일반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81.

(2) 사회적 역할분담

직업을 때로는 직분이라는 말로 대체 가능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직업이 사회적 역할의 분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인한다. 봉건시대에는 직업의 신분적 규정성을 강조하여 세습적인 것으로 원칙화 되어 있었고 이러한 직업의 세습 제도화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직업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분이라 할 때 직업이 그 본질상 사회적 직능분담의 의미를 갖는다.⁷⁾ 결국 직업은 일정한 사회적 분담 혹은 사회적 역할의 지속적인 수행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사회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게 된다.⁸⁾

(3) 자아실현

직업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개성을 발휘하며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은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⁹⁾ 이것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참다운 개성을 실현하려는 의미이다.

직업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생계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 자아실현은 서로 떨어져서 직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동적 통일이 있고, 이와 관계되는 통일을 만들어 직업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그의 天賦적 역할을 수행

7) 이규천 (1990), 전계서, pp. 11-12.

8) 임종철 (1981), "근로계층의 윤리의식과 노사관계",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 396.

9) 문화공보부 (1983), 「직업윤리」, 고려서적, p. 281.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노동이라 하겠다. 그러나 직업은 3요소를 항상 균등하게 겸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3요소의 균형은 직업의 이상적 형태의 조건이지 직업 그 자체의 조건은 아니다. 결국 3요소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직업형태의 구현을 위한 현대적 자세는 인간 이상의 실현에 있어서 직업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기도 하다.¹⁰⁾

2). 현대사회의 특징과 직업의 의의

현대사회를 가리켜 흔히 산업사회라고 한다. 산업사회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근대적 농경사회를 탈피하고 공업화된 사회로서 인간의 생활과 의식구조 및 가치관까지 지배하는 사회를 말한다. 인간의 꾸준한 의지와 창의력은 자연의존의 생업방식으로 부터 자연에 도전하여 자연을 극복해 가는 역사로 발전시켜 놓았다.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조직·제도등이 얽혀 사회구조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사회 변동이 급격한 동적 사회이며, 개방적 사회이다.¹¹⁾

특히 산업사회는 산업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조직화하고자 한다. 이 때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조직을 기술적 합리성과 조직의 합리성의 원리에 의거 구성한다. 합리성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사회의식 등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산업사회에 알맞는 행위규범 양식이 독특하게 성립되고 있다. 즉 산업사회가 유지, 관리, 발전되기 위

10) 성기중 (1990), 「직업윤리」, 형설출판사, pp. 28-30.

11) 한국국민윤리학회 (1993), 「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p. 15.

하여 사람들은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 등의 원리가 가장 적당한 규범의 내용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현대사회는 제2의 산업혁명의 시대, 과학기술적 혁명의 시대라고 말하여지는 산업사회이다. 이러한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과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른 바 합리화되고 기계화·자동화되면서 문화적인 개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다. 기업들은 산업사회에서의 경쟁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 생산적이고 더욱 기계적인 집단적 기업들로 뭉쳐져 가고 있다. 효율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기계화하고,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화하는 것이 산업사회의 특징이며, 이것이 인간의 삶과 존재를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연환경적 측면으로서 산업사회는 근본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입각하여 발전을 거듭해 왔다. 즉 산업발전의 주요한 전략적 차원이 자연자원이었는데 계속된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부존자원의 여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진보와 경제 발전이란 이름으로 자연의 심각한 훼손과 생산활동에 따르는 공해,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율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상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성장율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주체적인 측면으로서 현대인은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12) 노상윤 (1995), 「직업윤리」, 동아대학교 출판부, pp. 62-63.

들어와서는 물질적 풍요가 맹목적 소비 형태로 변질되고 각각의 개개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생활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본위의 생존경쟁과 거대한 조직화에 의하여 인간의 소외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산업화가 그대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가치의 상실과 도덕성의 퇴락에 따른 공허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¹³⁾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직업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바람직한 규범행위이며, 좁은 의미에서의 직업활동은 생계유지와, 활동을 돕는 일과, 노동을 통한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직업이 단순히 의·식·주의 해결보다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 보상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직업의 의미는 개인 본위의 보상획득행위가 아니고 사회적 역할 및 수행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회전체에 기여를 전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여를 통하여 인간다운 공동생활을 형성·유지하여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¹⁴⁾

2. 직업윤리

1). 직업윤리의 개념

윤리란 어떤 전체 사회에 있어서 공인된 행동규준이며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한다.¹⁵⁾ 직업

13) 한국국민윤리학회 (1993), 전계서, p. 14.

14) 상계서, p. 264.

15) 배영기, 진혜숙 (1996), 「산업사회와 직업윤리」, 학문사, p. 200.

윤리란 말은 본래 기업윤리나 상업윤리나 공무원윤리나 하는 말들이 그렇듯이 전문적인 용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식적 일반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윤리를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할 때 다양한 측면의 윤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윤리는 기업가가 지켜야 할 윤리이며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이듯이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일컫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다.

그리고 기업윤리나 공무원윤리 또는 관광윤리가, 기업가나 공무원 또는 관광객이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윤리도 일반 사람과는 달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며,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일반윤리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직업윤리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¹⁶⁾ 그러므로 일반적인 윤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삼고 그 바탕위에서 직업의 특수성에 맞는 직업윤리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일반윤리와 직업윤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¹⁷⁾

그러나 직업윤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윤리, 즉 모든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이고, 두번째는 각 직종에 따라 특수하게

16) 정태운 (1988), 「인간과 직업윤리」, 창학사, p. 270.

17) 김태길외 2인 (1985), 「국민윤리원론」, 박영사, pp. 76-77.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가 그것이다. 이를 편의상 ‘직업일반의 윤리’ 와 ‘특수 직업의 윤리’ 로 구별할 수 있다.

직업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이러한 각양각색의 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기준과 사회적 규범이 특수직업의 윤리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동양의 동양의 士農工商이라는 신분구별과 동시에 직업의 기본적 구별이었고 그 직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기준이 있었다. 또한 서양의 중세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각각 길드(GUILD)를 형성하여 고유의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특히 이러한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은 현대의 전문적 직업군(PROFESSION)에서 그 직업군별로 특유한 직업윤리를 형성하고 있다.¹⁸⁾ 직업일반의 윤리보다 훨씬 강한 특수직업의 윤리는 우선 전문직을 직업자체의 성격, 즉 고도의 지적수업을 쌓아야 하고 동시에 봉사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특성에서 유래한다. 이런 근거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의 특수직업의 윤리, 즉 전문직의 윤리는 무엇보다 ‘공공에의 봉사’ 라는 전문직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직업일반의 윤리는 각 직업에 의한 구별을 초월한 직업인의 일반윤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활동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활동 일반의 자세나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직업의 윤리가 직업생활에서 보통 외적인 규제력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직업일반의 윤리는 주로 내면적인 가치체계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진다.¹⁹⁾ 직업윤리는 국민윤리와의 연관성을 갖는다. 직업윤리는 직업의 주체인 직업인에 관한 것이고, 직업인은 국민의

18) 尾高邦雄 (1992), 전계서, p. 33.

19) 정태운 (1988), 전계서, pp. 271-272.

일부이며, 또한 국민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윤리와 국민윤리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가 직업생활에서 직업의 윤리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직업윤리란 일반윤리의 한 특수한 적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윤리 일반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에서 파생된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는 우리가 직업생활을 통해서 부딪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⁰⁾

2). 직업윤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아울러 국가사회에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익에 봉사해야 하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직업이란 것은 직업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대가를 얻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생계유지 측면과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가사회에 이바지 하는 측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참다운 개성신장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직업은 더욱 분화되고 세분된다. 직업의 분화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게 된다. 각 개인의 생존과 안녕은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녕 그리고 국가사회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다. 직업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우려했던 전체의 분화를 막고 오히려 직업의 내적인 통일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 서로 서로의 이질적인 직업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인 보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와 사

20) 배영기, 진혜숙 (1996), 전계서, p. 202.

회가 필연적인 관계로 맺어져 유지 발전되는 것이다. 직업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시키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직업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직업일반에 관한 올바른 직업관과 아울러 참다운 직업윤리의 확립이다.

국민윤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윤리는 직업윤리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민윤리 내용 속에는 직업윤리이외의 다른 윤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만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의 실질적인 국민이 되는 한에서 국민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직업윤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²¹⁾

직업윤리가 국민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면 직업윤리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모든 국민이 맡은 바 직업활동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나친 욕심과 편벽된 마음을 버리고·창의력과 적극적인 태도로 직업생활에 임할 때, 국민 각자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번영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3. 직업윤리교육

1). 직업윤리교육의 중요성

최근 우리 사회의 직업인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즉 60-70년대와 같이 우리 사회와 경제가 날로 발전할 때 가졌던 근로의식, 근로정신, 경제발전에 대한 사명감은 사라져 버리고, 근로의식은 퇴색하여 힘든 일, 위험한 일 등은 싫어하며 쉽게 돈버는 일에만 종사하려고

21) 정태운 (1988), 전계서, pp. 274-275.

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사실 요즘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할 것 없이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억지로 일을 시켜봐야 일의 능률이나 제품의 생산성이 높지 못하다. 확실히 직업활동에 대한 사고방식이 크게 바뀌어 버린 것이다.

가치관이나 규범은 사회가 바뀌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직업세계가 존재하는 한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기본, 근본이 되어야 할 규범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직업세계를 지탱시키는 '직업윤리'요 규범인 것이다. 직업윤리란 직업생활에 관련된 가치관과 규범으로서 직업인에게는 그 어느것 보다도 중요하다. 직장에서 직업윤리는 근로의식, 직업관, 직장관, 직분의식 등이다. 이것은 바로 직업인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질 내지는 마음가짐이며 또한 직업인의 존재가치이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직업윤리는 왜 중요한 것인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정신자세, 일에 대한 가치관은 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일의 문화', '근로의 문화'를 결정하게 되며, 그 사회의 근로에 대한 의식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제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안정된 사회일수록, 미래지향적인 사회일수록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형성된 사회에서의 개인은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며, 국가 전체로도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 각각 자기의 본분과 직분에 충실하고, 그로인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가 안정적으로 창출되며 윤리와 질서, 규범이 존중되는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²²⁾

22) 천영희 (1992),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 271.

직업에서의 윤리규범은 우선 크게 사회전체의 윤리규범의 수준으로 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전체의 윤리규범이 두텁지 못하데 직장의 윤리규범이 유달리 확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직업윤리교육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예를 들면 '土農工商'의 관습으로 인하여 工商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아주 소홀하여 工商에 종사하는 직업인에 대한 의식이 매우 미약하였다는 점이다. 정신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이러한 전통적 직업가치관은 현대의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직업윤리를 형성하는데 많은 장애요소가 되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직업세계에 들어서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들이 직업세계에 들어온 이상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할텐데 직업세계에 들어온 목적의식 자체가 불투명하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또는 생활지도에서 장래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생관이나 직업관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자기확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바로 직업세계의 출발점에서 부터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점은 현대 사회의 직업생활에서 직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직업윤리교육 방법의 이론적 모색

인간은 후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학습되지 않으면 동물에 비해서

생존의 위협을 많이 받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도리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점이 되어 만물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밀러(Miller)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의 직업이 개인의 성취동기와 가치관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어릴 적부터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지니게 되면 우수하게 일을 완성시키거나 독립성 및 자율성 훈련을 용이하게 한다.²³⁾

그러므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주어진 일에 자신감을 가지며, 직업수행의 적극성을 보이고, 그리고 직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강한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직업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 성취인의 행동특성면에 있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일 자체를 좋아하는 과업지향성이다. 성취인은 과업수행자체를 보상, 보수, 지위보다 높이 평가해 지위지향성을 회피하는 성향이므로 모든 직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 自信, 그리고 행동 등에 있어서 남보다 우월하다는 초월성을 과시하고 평가받기 위하여 강한 직업의식으로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찾고 도전한다.

둘째, 성취인의 과업지향적 우월성은 일에 대하여 적절한 모험성과 자신감을 가진다. 즉, 성취의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적 사실이 결핍된 주관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의 성취작업에 일하게 된다.

셋째, 성취인의 성취작업은 이타적이며 과업자체의 성취과정에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업수행의 잘못이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 귀결시킨다. 그리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획득될 성취, 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과업에 열중한다.²⁴⁾

23) 김중기 (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사, p. 76.

24) 박용현 (1980), 「성취인의 심리」, 배영사, p. 76.

이러한 성취인이 지니는 심리적인 특성과 과업지향성, 적절한 모험성, 자신감, 정력적 혁신성, 자기책임성, 일의 결과에 대한 귀책성, 미래지향성 등은 산업사회의 직업윤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헤릭(N. Herrick)은 직업의 목적과 일의 수단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의 최종목적은 개인의 행복에 있으나 직업의 최종목적은 사회의 인간화로 전환되어야 함이 현대 사업사회의 과제라고 하였다.²⁵⁾ 또 드러커(P. Drucker)는 일과 노동과의 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성취동기의 5단계설을 제시하였다.²⁶⁾

①생산적 차원 :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노동의 속도, 리듬, 주의력의 지속성 등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일은 확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으나 노동은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②심리적 차원 : 일은 괴로운 부담인 동시에 필요이며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다. 일이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③사회적 차원 : 일은 사람과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결합력이다. 일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인간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하여 문제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일은 이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도구)가 된다.

④경제적 차원 : 일은 생계라는 경제적 요소를 지닌다. 일은 경제가 영속되기 위한 수단을 낳고 경제활동의 위협에 대한 준비를 하며 내일을 위한 자원을 준비한다.

⑤권력적 차원 : 조직 내에서 일할 경우에는 언제나 표면화되지 않는 권력

25) N. Herrick (1981), *The Means and End of Work*, No. 7 (Human Relation,), p. 9.

26) P. Drucker (1974), *Management* (N. Y. : Book of Center,), pp. 292-312.

관계가 따르게 된다. 어느 조직에도 인간에 의해 행사되는 다소의 권력이 있게 마련이다.

일과 노동직위를 엄격히 개념지어 구분해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일은 대개 몸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이라는 원초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 정신노동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의 생계유지와 수단이나 경제적 반대급부 때문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직업의 내용과 성격이 지니는 도덕적·사회적 중요성과 내재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이해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²⁷⁾

그리고 경제발전 에 따른 공업화의 전개는 그 스스로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경제적 메커니즘의 전개를 초래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신성한 정당화의 필요성이 퇴색되어 가고 오히려 재미의 도덕이라는 말까지 생길 만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관찰을 이미 베버가 예견한 바 있는데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산업사회의 전진에 따른 새로운 책임윤리적인 직업교육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올바른 직업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일의 정보와 기술발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개인적이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일의 중요성과 윤리성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교육방법이 되고 있다. 즉, 진로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일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업적인 노작을 위주로 한 경험이 교수 방법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을 위한 직업적성교육을 바탕으로 일에 적용하고 만족스러운 능력을 길러내는 데 있다.²⁸⁾

27) 김경동 (1979),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33.

직업은 평생교육장이기 때문에 전생애를 통하여 인식, 탐색, 준비, 전문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직업적 존재이기에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은 무엇보다 인간중심적 교육일 수밖에 없다.

또한 파슨스(T. Parsons)는 산업사회의 직업교육을 통한 인간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①감정중화성(affective neutralize) ②한정성(specificity) ③업적성(achievement) ④보편성(universalism) ⑤개인지향성(individual orientation)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은 사회윤리적 행동양식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양식은 직업교육의 심화로 부터 전개되어 나온다고 하였다.²⁹⁾

끝으로 로젠버그(Rosenberg)는 직업선택에 작용하는 교육적인 기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의사결정의 이면에는 가치관이 1원화되어 있다. 즉,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치관의 일부와 무관할 수가 없다.

둘째, 직업의 선택은 사회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규제하는 태도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모든 직업활동은 대인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인간에 대한 느낌이 직업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데 변인이 된다.

셋째, 사회성원의 직업적 역할은 개인의 퍼스낼러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사회는 모든 성원이 적절한 직업적 역할수행이 잘 되어 인간자원의 낭비가 없는지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³⁰⁾

28) K. Hoyt (1972), *Carrer Education : What is and How to It*(Salt City: Oiympus publishing Co., p. 21.

29) T. Parsons (1961), *Theories of Society*(N. Y. : The Firee Press), p. 96.

30) 한국국민윤리학회(1993, 전게서), p. 282.

Ⅲ. 직업윤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직업윤리교육의 현황

1).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

학교교육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부터 다루고 있는데 “윤리(기존의 국민윤리)” 과목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윤리” 교과를 보면 직장생활윤리 단원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³¹⁾ 내용은 직업과 노동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우선 노동의 인간 본래적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 오늘날의 노동 현상, 선조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에 대하여 그 사회적 의의를 말하고 서양과 동양의 전통적 직업관을 살펴 본 다음 현대사회의 잘못된 직업형태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올바른 직업윤리 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데서 찾고 올바른 직업윤리의 근본원리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는 직업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첫째 직업적 양심과 성실성, 둘째 사회적 연대의식과 상부상조정신, 셋째 전문지식과 기술 연마, 넷째 인간애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면을 보면 전체 5장 중 2장의 ‘사회와 윤리’ 편에서 다루고 있다. 2장 ‘사회와 윤리’는 다시 세개의 절로 되어 있고 2절 ‘현대 사회의 생활윤리’ 다섯 단원 중 두번째 단원이 직장생활윤리이다. 분량 비중은 교과서 전체 302쪽 중 6쪽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 비중을 보면 “윤리” 과목은 교과과정상 6단위를 100여 시간에 걸쳐 시행되

31) 교육부 (1996),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는데 그중 직업윤리 부분은 1-2시간에 해당된다.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식이다. 교육의 성격은 일반 교양교육인데 필수과목이며 인문계 실업계 모두에 해당된다. 그밖에 실업과목에서 직업윤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실업과목은 기술, 상업 등 여러개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진로·직업” 교과에서 잘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³²⁾ I 장 삶과 직업, III 장 산업의 발전과 직업세계의 변화, IV 장 직업세계의 이해에서 직업 일반의 문제를 다루고, VI 장 행복한 직업생활에서 직업윤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VI 장은 I 절 ‘바람직한 직업관’, 2 절 ‘직업윤리’ 3 절 ‘직업인의 자질’, 4 절 ‘직업 생활에서의 적용’, 5 절 ‘평생 교육과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 절 ‘직업윤리’ 부분은 (1) 직업윤리의 중요성에서 직업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고 (2) 바람직한 직업윤리에서 직업윤리를 일반 직업윤리와 전문직의 직업윤리로 나누어 일반 직업윤리의 덕목으로 책임성과 전문적 능력을 강조하고 전문직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갖는 전문성과 독점성이 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량 비중은 교과서 전체 252쪽 중 대체로 관련되는 것이 159쪽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윤리 항목은 6쪽이다. 시간 비중은 실업과목이 6단위이다. 이중 직업윤리 부분만은 2-3시간에 해당한다. 교과의 성격은 직업교육 혹은 직업적성교육에 해당한다. 대학교육과정에서는 주로 교양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는 직업윤리만을 다루는 강좌는 없고 사회윤리 계통의 강좌에서 경제윤리의 한 부분으로 다루지고 있다.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강의 교재를 보면³³⁾ 전체 11장 중에서 간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6장 ‘한국

32) 교육부 (1996), 「진로·직업」,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33) 현대사상교재편찬위원회 (1990), 「현대사회와 윤리」, 학문사.

경제와 경제윤리'이고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9장 '자본주의 경제와 직업윤리', 10장 '현대산업사회의 윤리와 그 과제'이다. 9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경제윤리와 직업윤리를 다루고, 10장에서는 산업사회의 윤리,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윤리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분량 비중을 보면 전체 422쪽 중 30여 쪽에 해당한다. 시간 비중을 보면 한 학기 전시간 강의 중 5시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강좌는 교양과목의 개편과정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있다 하여도 선택이어서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직의 직업윤리교육은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예과에는 "의학윤리"강좌가 있고 간호학과에는 "간호학과 윤리"와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³⁴⁾사범대학에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직교과 중에 "교사론"이 개설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교직윤리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비록 해당 전공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전문적인 것이기는 하나 체계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문적인 성격을 지닌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대학교에는 "교사론" 강좌가 교육학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설강되어 있다. 과목의 성격을 보면 교육활동의 주체이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사에 관한 제반 현상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교직의 개념, 교사의 자질·역할·권리·지위·윤리 그리고 교사교육과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다루고 있다.³⁵⁾ 시간 비중은 2학점 2시간이 대부분이다. 산업대학 혹은 개방대학에서는 "직

34) 예를 들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요람(1995)에 의하면 의예과에는 3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의학윤리"가 1년 동안 1학점 2시간으로 설강되어 있고, 간호학과에는 2학년 전공필수로 "간호학과 윤리"가 2학점 2시간으로 설강되어 있다.

35) 서울교육대학교 요람 (1993). p. 91.

업윤리”강좌가 설강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일반 교양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강좌는 4년제 일반 대학과는 달리 “현대사회와 윤리” 계통과 “직업윤리”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윤리” 강좌는 4년제 일반대학교 유사하다. “직업윤리” 강좌를 보면 그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간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과 직업의 윤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며, 둘째는 각 분야의 직업에 따르는 윤리와 역할에 따른 윤리의 내용이며, 셋째는 한국의 사회발전과 윤리, 외국의 사례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교재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는 등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윤리” 교재의 한 예를 보면 그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⁶⁾ 1장 ‘현대사회와 직업’에서는 직업의 의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2장 ‘직업의 변화발달’에서는 직업의 변화발달의 의의와 양상을 다루면서 한국에서의 산업과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3장 ‘자본주의와 직업윤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이 갖는 중요성과 자본주의의 속성과 직업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장 ‘현대산업사회의 직업윤리’에서는 기업가와 종업원의 윤리, 공무원의 윤리, 언론인의 윤리, 기술자의 윤리를 다루었다. 5장 ‘직업의 선택과 직업윤리’에서는 직업선택시의 문제를 다루고, 6장 ‘지도자의 직업윤리’에서는 지도자의 역할 및 인간관계를 토대로 요구되는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7장 ‘의사전달과 직업윤리’에서는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 지시와 보고에 있어서 요구되는 윤리의 문제를 다루었다. 8장 ‘인간관계와 직업윤리’에서는 공무원과 회사원, 행정과 경영의 인간관계를 다루었고, 9장

36) 이규천 (1989), 전제서, 참조

‘노사협조와 직업윤리’에서는 노사협조의 중요성, 한국의 현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문대학의 이러한 강좌들은 교양교육에 속하고 있고 주당 2시간씩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문대학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의한 교육과정 개편이 모색되면서 이러한 강좌는 없어지거나 선택과목화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윤리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학과의 성격에 따라 전문직업의 윤리가 교육되는 점은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와 유사하다.

2).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

사회에서 직업윤리교육이 시행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중교육의 경우이다. 민방위 교육,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신교육, 조리사의 위생교육 등 각 분야별 모임에서의 정신교육, 농민단체의 영농교육 등등에서 행하여 지는 것 들이다. 이런 교육은 비체계적이고 간접적이며 비정규적이어서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교육방법도 천편일률적인 강연식이 대부분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는 각급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직무교육이나 기업체에서 행하는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각급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직무교육은 교육시키고자 하는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서 직업윤리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³⁷⁾ 직업윤리의 내용구조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업등의 연수와 교육내용을 보면 ① 사

37) 천영희 (1992), 전개 논문, pp. 275 - 277.

회인으로서의 규범, ② 직장일반인으로서의 규범, ③ 회사원으로서의 규범, ④ 직책 직무에 따른 규범이 전반에 걸쳐 짜여져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는 면을 보면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면이 없지 않다. ①②③영역에 대한 교육은 주로 신입사원 연수에서 이루어지고 ④영역은 간부사원을 중심으로 한 계층별 교육과 직능별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주로 ②③의 영역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 둘째 직업활동상의 정신, 기질로서 근면·책임·직업에 대한 애정·서비스 정신·의욕·능력향상 의욕, 셋째 합리적정신(일의 능률과 관련), 넷째 조직인으로서의 의의에 대해 조직에 대한 소속의식, 조직규율의 준수, 조직명예의 보호, 선량한 인간관계 유지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점차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다. ④영역과 관련하여 직책에 따른 규범 교육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간부의 역할과 책임(사명), 간부사원에게 필요한 정신자세(덕목)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에 따른 규범 교육은 바람직한 기술인상, 장인정신, 선진국의 장인정신 등의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대부분은 직업세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는 기업선택의 기본이 되는 의식등이 없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직업관, 직장관을 심어주기 위해 ②③의 내용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몇몇 기업에서 실시한 신입사원교육의 실례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³⁸⁾

<표> 각 기업의 직업윤리교육 현황

회 사	과 목	방 법	시 간	강 사	비 고
S	· 직업관과 직장윤리	강 의	2	대학교수	교육기간 24일
	· 기업의 역할과 사명	강 의	2	대학교수	
	· 회사이념과 회사정신	강 의	2	사내강사	

38) 상계 논문, p 276.

회 사	과 목	방 법	시 간	강 사	비 고
S	· 직장예절	토의/실습	8	사내강사	교육기간 24일
	· 공존공영의 길	강 의	3	사내강사	
	· 행동규범연구	독서 및 실습	10	자기학습	
H	· 한국인 정신과 예의문화	강 의	2	대학교수	교육기간 25일 농군학교
	· 기업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강 의	2	대학교수	
	· 회사의 역사와 미래	강 의	2	사내강사	
	· 사랑의 실천, 잘사는 길, 하자의 신념 등	강의 및 실습	16	위탁교육	
L	· 회사 역사와 정신	강 의	4	사내강사	교육기간 18일
	· 직장인의 예절	강 의	2	사내강사	
	· 경영이념 율삭	강의·토의·발표	6	사내강사	
D	· 직장인으로서의 직업관과 가치관	강의·시청각·토의	10	사내강사	교육기간 15일
	· 회사현황과 기업문화	강의·시청각·토의	10	사내강사	
	· 직장인의 자세와 행동	강의·실습	7	사내강사	
S	· 민주시민과 자아	강 의	2	대학교수	교육주간 12주
	· 시민정신	강의·토의	10	대학교수	
	· 기업문화	강 의	2	사내강사	
	· 업무수행의 자세	강의·실습	10	사내강사	
	· 올바른 언어예절	강 의	2	대학교수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가직업훈련기관에서이다. 각 분야별(학과별) 교육훈련은 년단위로 261간 총 1,804시간에 걸쳐 이루어 지는데 공통교과 수업 3과목 중 직업생활 교과가 편성되어 2단위로 연간 40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교과운영의 예를 보면³⁹⁾ “직업생활이론”이라는 강좌에서 40시간중 13시간을 직업윤리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내용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 주체성 있는 삶의 자세, 자기계발, 생활 예절,

39)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직업전문학교.

직업의 의의, 나의 직업선택, 직업능력향상, 직장과 취업, 협동정신과 팀워크, 생산과 품질, 훌륭한 인간관계 등이다. 그밖에 노사관계가 따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과목의 교재로 전 기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직업생활”의 내용을 보면⁴⁰⁾ 제1장 생활설계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 자신의 발견, 청소년기의 자기설계, 자기계발, 평생을 통한 교육훈련, 생활예절, 제2장 직업생활의 설계에서 직업의 의의, 나의 직업선택, 직업생활의 설계,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직업능력의 향상, 천직의식, 제3장 직장과 취업에서 직장의 선택, 면접, 직장의 채용규칙, 제4장 보람된 직장생활에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 협동정신과 팀워크, 적극적인 분임조 활용, 훌륭한 인간관계, 제5장에서는 생산과 품질, 제6장에서는 산업사회와 경제, 제7장에서는 법과 일상생활, 제8장에서는 노사관계 일반, 제9장에서는 기업이 바라는 직장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업윤리교육은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교양교육은 사회인, 경제생활인으로서의 문제와 직업일반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직업교육으로서 직업윤리교육은 전문분야의 직업윤리와 직장생활의 윤리문제를 다루는데 주로 사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될 청소년이나 현재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특정 직장을 통하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윤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기관

4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2), 「직업생활」

이나 기업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소속 구성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양하는 직업윤리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문제점을 교육현황에서 논한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분량의 절대부족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직업을 갖거나 취업준비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로 지도와 함께 직업윤리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윤리 문제를 바로 다루는 것은 '윤리' 한 과목 뿐이며 그 분량은 2% 정도이고 시간으로는 전체 교과과정에서 '윤리'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데다가 '윤리' 시간 중에는 2% 정도를 직업윤리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직업 혹은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배정된 분량이 적다보니 직업윤리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업과목으로서 여러 과목가운데 선택하게 되어 있는 '진로·직업'교과는 내용이 충실하고 시간 비중도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이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⁴¹⁾

대학교 과정에서 보면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좌가 개설될 여지가 전혀 없는게 현행 교과과정이다. 교양과정에서 일부 다루고 있다 해도 분량, 시간 면에서 매우 미미하며 내용도

41) 실제로 제주도인 경우 1996학년도에 '진로·직업'을 선택한 고등학교는 단 1개 학교도 없다.

실질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탓만은 아니지만 이 결과 특히 기업에서
는 직업인으로서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을 신입사원 교육에서 새롭게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바람직한 수준의 직업·직장
관이나 근로의식,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다하여 대학에 대해 바로 직장생
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존 혹은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학문을 다루는 대학의 경우에는 의과대학이나 사
범대학 정도에서 직업윤리문제가 다루어 질 뿐 법과대학이나 기타 분야에
서는 아직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사정
이 다양하나 역시 교양과목의 축소 내지 폐지 경향에 따라 교육 기회가 줄
어지고 있다. 교양강좌의 사회윤리에 속하는 과목들은 점차 선택과목화 되
거나 폐지되고 있다.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업윤리 부분은 그 비중이
극히 낮다. 따라서 '직업윤리'라는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윤리교육이 없는 실정임은 4년제 일반대
학의 경우와 유사하다. '직업윤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충
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과 계통의 학과에서 의료윤리의 문제가 다루어
지는 것은 4년제 대학의 경우와 같다. 전문대학과 비슷한 산업대학이나 개
방대학에서는 비교적 '직업윤리'과목이 잘 개설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의 문제는 아예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분량이나 시간면에서 그 비중이 매우 낮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과 열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실
정이다. 전반적인 사회윤리의 한 부분으로 약간 거론되는 정도이며 교육
방법도 지식을 주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으로 우선 기업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천영희는 문제점을 두가지 면에서 지적하고 있다.⁴²⁾ 첫째, 지금의 실정으로는 기업에서 직업윤리교육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직업윤리'의 개념이 명확치 못한 점,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점, 정신 교육이나 윤리 교육이라는 명칭이나 방식은 연수생들에게 대체로 거부반응이나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둘째,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교육내용 면에서 보면 각 기업이 나름대로의 경험적인 것을 근거로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교과목 내용 구성이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신입사원 교육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명칭이나 교육시간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자주 변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방법 면에서 보면 강의식 일변도의 교육방법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사실 태도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2-3시간의 주입식 정신교육이나 특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셋째, 교재와 강사의 면에서 보면 교재와 강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데 강사에 따라 강의 교재가 그 수준이나 주제, 관점이 다양하여 혼란스럽고 강사는 대개 전문적인 직업윤리에 대한 연구 없이 일반적인 직업관이나 직장관을 지식수준에서 이론적인 강의로 1-2시간을 떼우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구조적인 면을 보면 종적으로 볼 때 기업에서는 어디까지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해야 할 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횡적으로 보면 사회전반이 윤리와 규범에 있어 바람직한

42) 천영희 (1992), 전계 논문, pp. 277-279.

분위기와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여 기업에서만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을 경시하는 사회풍조, 신념을 갖고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는 직업윤리교육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교육방법상 정신교육성격의 강연식 교육, 강사에 따른 일의 내용 선정과 흥미위주 교육, 강사의 수시 변경 그리고 내용상 지식 위주의 이론에 치우치거나 낮은 수준의 당연한 문제만을 교육하는 것, 끝으로 기업가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선입관 내지 사회적분위기 등이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비교적 짜임새 있게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 보면 교재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기는 하나 실제 시행에는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시간 수에 비해 분량이 많거나 백과사전 식으로 여러 문제를 나열해 놓는 면이 있다. 지식위주로 짜여진 점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모든 훈련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교재를 개발하다 보니 각기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직업윤리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방법의 면에서 보면 지식위주의 이론교육은 여전히 하고 거의 주입이나 설명에 그치는 강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 현행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와 교재, 기타의 면에서 살펴 보았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육기회의 부족과 비체계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내용, 천편일률적인 지식위주의 이론을 강의하는 교육방법, 교재개발과 강사양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체제와 사회분위기 등에서 야기되는 직업윤리에 대한 무관심과 의식의 약화 등이라 하겠다.

IV. 직업윤리교육의 강화 방안

1. 목적과 위상의 정립

직업윤리교육의 목적과 위상을 정립하는 일은 어느 실제 교육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매우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사회교육 즉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는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날 기업들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기업이 과연 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 뿐만 아니라 덕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강요하거나 노사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데서 오는 반발 내지 저항을 초래케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직업윤리교육의 목적을 정립하는 일이란 직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직업은 인간 본래적 문제이면서 사회관계의 소산이다. 직업은 소박하게 말하면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 행위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서 자아완성의 목표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공동선을 창출하려는 의무를 성취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두가지 모두 사회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직업의 사회관계 측면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직업은 상호혜택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계약에 기초한 제도화된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⁴³⁾ 직업윤리란 인간으로 하여금 직업의 개

43) 김형철 (1992),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 대한 논평",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 314.

념에 입각하여 그 가치를 이해하고 체득하며 나아가 직업활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의 직업 혹은 직장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직업윤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나눌 수 있다. 직업윤리의 개인윤리적 요소는 첫째는 직업관의 윤리이고 둘째는 직업생활의 윤리이다. 직업생활의 윤리는 다시 직무에 따른 윤리 즉 직무수행상의 윤리 문제와 직무수행에 따른 사회적 의무와 책임 등의 윤리와 직장생활의 윤리 즉 직장공동체를 원활히 유지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직인으로서의 윤리로 나눌 수 있다. 직업윤리의 사회윤리적 요소는 각각의 직업공동체가 갖는 윤리(성)이다. 이것은 구체적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직업집단(예를 들면 의료계)이나 기업의 경우에 그 자체가 갖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직업윤리를 전 윤리체계의 면에서 보면 그것은 보편적 도덕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도덕가치를 다룬다. 직업윤리는 시민윤리의 일부로서 생활윤리이다.

직업윤리교육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직업문제를 다룸으로써 직업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직업윤리교육 역시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에 의한 인식적 합리성의 보충과 동기적 합리성의 변환을 통해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모색한다.⁴⁴⁾ 덧붙여서, 행위규범에 대한 훈육을 통해 행동과 태도를 교정한다. 목표를 세분화 해 보면 한 가지는 윤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직업의식 및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치와 태도를 검토하고 스스로 바람직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합리성과 포괄

44) 김형철, 상계논문, p. 316.

성, 공감성을 바탕으로 해야한다.⁴⁵⁾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인식하고 결정한 가치·태도를 덕목화 하여 행위·행동으로 옮기는 훈육이다. 여기에는 보편성에 입각한 전통적 가치나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덕목화 된 것이 포함된다. 직업윤리교육은 효과와 관련하여 보면 잠재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현시적·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실시 주체와 관련시켜 고찰해 보면 직업윤리교육은 크게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교양 도덕·윤리 강의와 직업문제와 간접적인 관련을 맺는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고,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의 윤리 중 직업생활 분야와 진로 및 취업관계 분야의 강의 그리고 사회의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에서의 직업·직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교양 윤리교육과 실무적인 직무·직장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모두 다 교양과정의 도덕·윤리교육으로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봉사 문제, 직업관의 문제, 직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계 학교나 전문분야의 대학에서는 특정 직업의 윤리 문제, 직장에서의 윤리 문제 등을 윤리적 차원에서 다룬다. 덧붙여서는 진로상담교육으로서 목적도 갖어야 한다. 사회생활의 기반으로 각종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직업관을 확립하고 또 바로 선택하게 해줌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도덕·윤리교과의 필수적 부분으로 또 진로상담, 실과교육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전문분야에서도 독립교과로 다루어져야 한다.

45) 소홍렬 (1985), 「윤리와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43-44.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직업훈련기관에서와 기업에서의 강의가 차이가 있겠으나 모두 직업교육으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직업교육이 단순히 작업기술이나 업무요령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업을 통한 자아완성과 사회봉사, 그 직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직장공동체 생활의 윤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윤리교육은 단순한 정신교육이나 노사관계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선택한 직업과 직장에 대한 긍지를 심어 주고 그를 통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수에 관계없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 교육내용의 체계적 편성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성한다 함은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과 교과목의 내용구조를 건설화 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은 말을 바꾸면 교육내용의 체계화라 할 수 있다. 체계화는 우선 교육시행기관 간의 문제이다.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하여지는 내용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단계별 내용간에 심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과목의 내용을 건설화하는 것은 교과내용 구성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직업윤리가 사회윤리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만큼 상부구조 간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부구조로서의 직업윤리는 상부구조로서의 사회윤리적 가치와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같은 일반윤리의 내용과 사례중심의 특수한 예가 균형을 이루어 상보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⁴⁶⁾ 셋째로 목적과 관련하여 지식과 지적능력, 가치와 태도의

46) 김형철 (1992), 상계 논문, p. 317.

분야 즉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간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인접과목의 내용과 균형 및 조화를 꾀해야 한다. 단순히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육내용의 체계적 편성은 시행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내용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지나치게 경직되어서는 안되며 교육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이는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이다. 특히 일반적인 직업관의 변화,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사회변화에 따른 전통적 직업의 쇠퇴와 새로운 직업의 등장,⁴⁷⁾ 지역적 직업분포의 변동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성을 갖는다. 내용의 재구성시에는 지역 특성, 교육대상자의 특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교육목표와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⁴⁸⁾

현행 직업윤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본다. 고등학교과정 '윤리'교과의 직업윤리 내용을 보면 그 분량이 위낙 작다. '윤리'교과의 시수가 작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시수가 확대되어야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수가 확대되어 직업의 의의, 현대사회와 직업, 직업윤리의 사상적 기반, 직업일반의 윤리 4가지 내용을 좀더 자세히 다루고 덧붙여 삶의 보람과 일의 문제, 직업관의 문제를 더 다루어야 한다. '진로·직업' 교과는 그 내용이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잘 편성되었다고 본다. 이 경우는 '윤리' 교과 내용과의 중복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교과목이 거의 채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용은 교양과목적 성격과 사회윤리적 보편가치의 이해라는

47) 정신문화연구원 (1985), 「직업과 윤리」, pp. 42-51.

48) 오영태 (1986), 「사회와 교육」, 교육과학사, pp. 135-140.

일반윤리적 성격을 중시하고 개인적 의의를 중시 하는 것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일반윤리계열의 강좌를 볼 때 역시 양적으로 부족해서 경제윤리의 극히 일부분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다 보니 그 내용이 상식적이며 빈약하다. 대학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우선 강의가 설강되고 시수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내용과 방법이 문제가 된다. 이 점은 오늘날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서 대학 이야말로 직업세계로 나가는 길목이 되었다는 점과 고등학교과정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업윤리”강좌는 그 내용체계를 첫째 인간과 직업의 문제, 둘째 직업일반, 직업별, 직장공동체의 윤리문제, 셋째 현대 한국의 사회윤리 문제로 하여 심화하여야 한다. 대학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그 내용이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직업과 그 윤리에 관한 지식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그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직업과 직업윤리의 개인적 의의와 사회적 영향을 조화있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짜여져야 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여건으로 보아 그 시수나 내용상 큰 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방법 등의 문제가 된다. 직업훈련의 대상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직업윤리교육과 잘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 특정의 직업을 이미 선택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직업의 윤리 문제와 직업공동체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해 그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들 속에는 산업안전의 문제와 노·사문제도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방법의 문제와 함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된다.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사에 따른 강의 내용의 임의 선정과 주제의 변경, 보편적 윤리문제의 경시, 해당기업의 특수사례 위주의 경험적 내용 편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신입사원을 위한 직장교육, 일반사원을 위한 직무교육, 또는 정신교육,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등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지며 그것은 정기적이거나 정규의 교육이 아니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에서의 교육내용은 그 성격과 횟수 등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 대체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해당 직업(직장)의 개인적, 사회적 의의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동체 생활의 윤리 문제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 사례 중심의 내용편성이 상위가치인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특정 덕목중심적 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토론 등에 의해 탐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동체생활의 윤리 문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직업윤리교육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①인간의 삶과 일, ②직업의 개념과 의의, 현대사회와 직업, ③직업관, ④직업과 윤리, 직업윤리의 사상적 기반, 직업별 윤리와 직업일반의 윤리, 일의 윤리와 레저의 윤리,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의 윤리, ⑤직장생활과 윤리, ⑥공공적 성격의 직업과 윤리 ⑦ 사회생활과 직업인의 윤리 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기관별, 단계별로 비

중과 심화의 정도가 다르게 선택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④항과 ⑤항의 구체적 내용이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는 그 내용으로 ①양심에 기초한 성실성, 금지와 자부심의 장인정신과 천직의식 ②공동체를 위한 연대의식과 상부상조 ③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 ④인간에 의 실천을 들고 있다.⁴⁹⁾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는 ①사회인의 입장에서 공정, 신의, 예의 및 법령준수, 풍부한 인간성 ②직업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 및 역할 자각 ③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면, 책임, 직업에 대한 애정, 서비스 정신, 의욕, 능력향상 의욕, 합리적 정신 ④조직인으로서 소속의식, 조직규율의 준수, 조직명예의 보호, 양호한 인간관계의 유지, 관리·감독의 적정한 수행, 집단사기의 고양 등을 드는 경우도 있다.⁵⁰⁾ 직업훈련기관의 교육내용은 보람된 직장생활을 위해 ①업무에 대한 책임감 ②협동정신과 팀웍 ③적극적인 집단활동 참여 ④훌륭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하고, 기업인이 바라는 직장인상으로는 ①사회참여와 봉사정신 ②조직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③바람직한 자아실현 노력을 들고 있다.⁵¹⁾ 직업의 사회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①사회적 역할분담의식에서 비롯되는 책임의식, 소명의식, 천직의식, ②문제상황의 예방과 처리면에서 자발성과 자율성 ③상호관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성실과 신뢰, 책임에서 비롯되는 연대성 ④직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들며, 직업생활의 개인적 덕목으로서 근면, 성실, 검소에 요구되는 자제력을 들 수 있다.⁵²⁾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볼 때 ④항과 ⑤항의 내용은 위의 내용들을 재분류하여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기관이나 단계에 따라 구체적

49) 고등학교 「윤리」(1996), pp. 75-77.

50) 천영희 (1992), 전개 논문, p. 275.

5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2), 전개서, pp. 73-108. pp. 221-223.

52) 김동일 외 (1995), 「현대인의 직업윤리」, (문음사), pp. 82-84.

인 내용을 더해가면 될 것이다.

3. 실질적 교육방법의 개발

직업윤리교육은 제도의 틀과 사회적 인식의 제약 그리고 교육주체의 경제적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이상적인 데 치우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상황에 토대를 두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 방법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들을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환경에 따라 그 장단점을 살려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흔히 시행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방법은 학교교육에서 보면 인지적 내용을 주입하는 강의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정의적 내용을 학습자들의 탐구에 의해 학습하는 토론식 방법이 부수적으로 행해진다. 사회교육에서 보면 강사의 화술에 의존하는 강의식 방법이 주를 이루고 부수적으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형식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윤리교육은 주입식 방법과 탐구식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⁵³⁾ 이 큰 두가지 방법의 범주 안에서 많은 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된다. 주입식 방법의 주요기법은 강의법과 시청각 매체활용법이고 탐구식 방법의 주요 기법은 토의법과 문답법 그리고 모의 및 역할놀이법이다. 탐구식 방법은 학습단위를 소규모화하는 분단학습법으로 시행된다.

강의법은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대단히 경제적이기는 하나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53) 정세구 (1983), 「국민윤리교육론」, 교육과학사, pp. 123-141.

다. 이 방법은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효과적이며 강의자의 화술에 따라서는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를 지루하게 만들고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어려워 문제해결능력을 주로 하는 지적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학습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많은 양의 일시 주입으로 학습자가 이를 흡수·소화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제한적으로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교수·학습의 도입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기능, 전개단계에서 주요 이론이나 개념의 해설, 정리단계에서 요약이나 종합에 효과적이다.

시청각 매체 활용법은 시청각 매체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에 언어에만 의존하던 간접적 방법에서 벗어나 서적 이외의 직접적인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선수학습에 효과적이며 학습자의 관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학습의욕을 높이고 탐구의 방향을 정해주는 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학습자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효과가 있고 개별학습을 위한 진단검사와 보충심화 학습에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사용 도중에 수정하거나 보충적 활동을 벌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방법은 수업시에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부차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

토의법은 탐구식 방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학생들이 공동의 가치 갈등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 사고 및 대화를 거쳐서 결론이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주정치의 발전은 사회집단속에서 중대한 결정이 어느 한 두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대다수 성원들의 대화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지적 능력이 증가하고 외부적 보상에서 내적인 보상으로 바뀌며, 발견성의 학습이 가능하고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점이다. 문제점으로는 이 방법의 기초가 되는 발견이나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잘못 운영되면 몇몇 학습자들의 독무대가 되어 버려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토의법은 학교교육에서나 적합하다 하겠다. 토의의 대상은 주제 숙달, 논쟁점 정향, 문제 해결을 위한 것 등이 있다. 토의의 형식은 대립 토의, 패널 토의, 포럼 토의 등이 있다.⁵⁴⁾ 토의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발달과 관련하여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다. 토의는 시민사회에서 토의 당사자 간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당사자 간의 상호 주관적 관계를 형성, 비판력과 창의력 증진, 당사자 간의 관심과 참여 증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재고 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그런데 토의수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선 방법이다. 따라서 전제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교사의 마음가짐으로 교사는 자율적인 교육, 다양성의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고력의 신장을 기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윤병희가 “민주적 학급경영과 대화·토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학습 방법·분위기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조건과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20가지

54) 교육부 (1995), 「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pp. 95-96.

조건에서 보듯이 자유로운 분위기, 공동체의 참여의식, 청취력과 발표력, 자체력, 성공에의 자신감, 결과의 수용과 실천의지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학습의 실제로는 복습식 토의, 소크라테스식 토의, 세미나식 토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⁵⁵⁾

문답법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응답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탐구식 기법이나 질문의 성질에 따라서는 탐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서당식 수업에서 사용되어 왔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이래 중요한 기법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학습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조적 사고의 발달을 도와 주고 탐구의 발달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이방법으로는 독자적인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없으며 강의나 토의를 진행하면서 부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이다. 이 방법에 사용되는 질문은 그 성격상 인지적 기억 질문, 수렴적 질문, 발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등이 있다.⁵⁶⁾

모의 및 역할놀이법은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지닌 의견이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습자들이 어떤 문제사태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주어진 상황 속의 인물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실제로 해 보며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⁵⁷⁾ 이

55) 광병선 외 (1994),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pp. 198-212.

56) 교육부 (1995), 전계서, p. 96.

57) 상계서, p. 96.

방법은 역할놀이의 상황을 실감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며 여건에 따라서는 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일반적인 도덕·윤리교육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특정 직업의 선택 혹은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는 주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관을 다루고 직업생활의 윤리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지적인 면에서 규범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천과정에서 행해지는 판단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규범의 내면화, 규범의 근거와 이유를 이해, 가치개념의 명료화, 가치갈등의 해결, 실천동기의 강화 등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⁵⁸⁾ 주입식에 의한 경우는 시청각 매체의 활용이나 탐구식 방법을 혼용하도록 해야 하고 가능한 한 탐구식을 많이 사용토록 한다. 그밖에,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사회 특히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그 대상자들이 이미 특정 직업을 선택하여 있고 특정 집단에서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은 학교와는 달리 교육자체 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과는 내용면에서나 방법면에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이 내용과 관련해 보면 구체적인 특정의 덕목을 제시하여 실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방법으로는 혼화성의 주입식 강의법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 중에서 강연식 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토록 해야 한다. 가치 갈등의 해결, 실천

58) 이돈희 (1989), 「도덕교육원론」, 교육과학사, pp. 314-334.

동기의 강화를 위한 기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대상자들이 성인이고 이미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접하고 있으므로 주입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탐구식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탐구식 방법은 그 사용을 위해 알맞은 환경, 대상자들의 사전준비 등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영자의 관심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또 현재 여러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분임조 활동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탐구식 방법 중에는 토의법과 모의 및 역할놀이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한 곳에 대상자 전원을 모아 놓고 일률적으로 행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수시로 대상자들이 활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식 방법에 의할 경우는 강사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해당자를 강사로 초빙한다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 강사에 따라 주제가 일관성 없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방법을 사전에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전에 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독서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독서자료를 통해서도 자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도의 보완과 환경의 개선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첫째는 교육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교육 시간수를 늘리고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직업윤리의 문제는 일반 “윤리”교과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로·직업”교과가 가급적 많은 학교에서 선택되어 설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

침 되어야 하며, 개편이 예상되는 “교련”교과를 대신할 과목에 직업윤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사회봉사’과정이 직업윤리교육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대학에서는 교양선택과목으로 직업윤리와 관계되거나 직업윤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강좌가 설장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고등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과 연계되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대학 교양강좌의 다양화와 실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직업윤리를 다루는 유사강의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며 필수과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범계열, 의예계열, 법학계열 등에는 각론적 성격을 띠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직업윤리교육을 상설하여야 한다. 매달 내지 분기별 1회 이상은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문화의 창달과 관련해 볼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직업윤리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반관반민의 성격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성격보다는 연구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설립과 운영은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직업윤리의 정립과 심화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는데 교육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강사들에게 연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특히 기업에서 큰 문제가 되는 교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강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의 개선은 직업윤리교육의 효과를 재고하는 데 중요한 문제로 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에 대한 의식을 바꾸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은 교육관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실무자와 교사 및 강사, 교육대

상자가 이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지만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나 보수적인 면에서 배려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의 관리자나 기업의 경영자 그리고 직장의 고위직에 있는 상사들의 문제이다. 그들이 직업윤리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직업윤리의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서는 경영의 윤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업내 의사결정이나 인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환경의 개선은 한편으로는 직업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가능하고 또 그런 직장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직업윤리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순환논리적인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업윤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의 조성은 가능하며 긴급한 문제이다.



V. 결 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직업생활은 한 개인의 존재양식, 의식구조, 그리고 생활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사회참여, 자아실현, 국가사회에의 공헌 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을 바르게 선택하고 개인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하여 어떤 의식, 자세,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직업윤리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직업윤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직업윤리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학교와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에 대하여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윤리'과목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내용은 직업과 노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 직업관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잘못된 직업형태를 지적하여 그 원인을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이 확립되지 못한데서 찾고 올바른 직업윤리의 근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교양교육에서 다루고 있는데 직업윤리에 대한 강좌는 없고 사회윤리 계통의 경제윤리의 한 부분으로 다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일반 교양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강좌도 선택과목으로서 교양과목의 개편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각급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무교육이나 기

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신교육 등이다. 직업윤리의 내용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업에서는 신입사원과 간부사원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으로서, 학교교육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분량의 절대 부족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거나 취업준비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 하면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윤리교육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보면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교양과정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데 시간, 분량, 내용면에서 매우 미미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전문대학 역시 교양과목의 축소 내지 폐지 경향에 따라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의 문제는 시행의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시간이나 분량 면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아 구체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방법이 적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정신교육성격의 강연식 방법, 흥미위주 교육, 강사의 수시 변경, 지식 위주의 이론이나 낮은 수준의 당연한 문제만을 교육하고 있어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직업윤리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 한다면 교육기회의 부족과 비체계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내용, 지식위주의 이론강의,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체계와 사회분위기 등에서 야기되는 직업윤리에 대한 무관심과 의식의 약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직업윤리교육의 목적과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도덕·윤리 교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고, 진로상담이나 실과교육에서도 부분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전문분야에서도 독립교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의 직업윤리교육 역시 정신교육이나 노사관계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직업과 직장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직장을 통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의 직업윤리 내용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선 시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은 교양과목적 성격과 일반윤리적 성격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우선 강의가 설강되고 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내용은 한 직업인으로서 직업과 직업윤리의 개인적 의의와 사회적 영향을 조화있게 강조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신입사원을 위한 직장교육, 일반사원을 위한 직무교육,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인데 내용으로는 해당 직장의 개인적, 사회적 의의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동체 생활의 윤리 문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직업윤리교육의 방법은 현재의 상황에 토대를 두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들을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환경에 따라 그 장단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일반적인 도덕·윤리교육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면 된다. 사회 특히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기존의 방법중에서 강연식 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토록 해야 한다. 가치갈등의 해

결, 실천동기의 강화를 위한 기법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대상자들이 성인이며 이미 그런 문제를 접하고 있으므로 주입식 보다는 탐구식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행제도의 보완은, 우선 교육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직업윤리교육의 시간수를 늘리고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직업윤리와 관계되거나 직업윤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강좌가 설강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직업윤리교육을 상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직업윤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의 개선은 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에 대한 의식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관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교육대상자가 이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관리자나 기업의 경영자, 직장의 상사들은 그들이 직업윤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직업윤리의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업윤리교육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나 방법, 제도 등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직업윤리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되어 다양한 직업과 직업활동에 따르는 인간관계 까지 실질적인 직업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문 헌

- 1) 광병선 외 (1994),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2) 교육부 (1996), 「고등학교윤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3) 교육부 (1996), 「고등학교 진로·직업」,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4) 교육부 (1995), 「윤리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5) 김경동 (1979),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6) 김동일 외 (1995), 「현대인의 직업윤리」, 문음사.
- 7) 김영철 외 (1989), 「현대사회와 윤리」, 서광사.
- 8) 김충기 (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사.
- 9) 김태길 외 (1992), 「삶과일」, 고려원.
- 10) 노상운 (1995), 「직업윤리」, 동아대학교 출판부.
- 11) 문화공보부 (1983), 「직업윤리」, 고려서적.
- 12) 박용헌 (1980), 「성취인의 심리」, 배영사.
- 13) 배영기 외(1996), 「산업사회와 직업윤리」, 학문사.
- 14) 소홍렬 (1985), 「윤리와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5) 서울여자대학교 요람(1993).
- 16) 성기중 (1991), 「직업윤리」, 형설출판사.
- 17) 심의보 (1995), 「직업윤리」, 백산출판사.
- 18) 오영태 (1986), 「사회와 교육」, 교육과학사.
- 19) 이규천 (1990), 「직업윤리」, 형설출판사.
- 20) 이돈희 (1989), 「도덕교육론」, 교육과학사.
- 21) 이한구 (1985), 「직업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원.
- 22) 임종철 (1981), “근로계층의 윤리의식과 노사관계”,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23) 정세구 (1983), 「국민윤리교육론」, 교육과학사.
- 24) 정태윤 (1995), 「인간과 직업윤리」, 창학사.

- 25) 진교훈 (1983), 「직업윤리 일반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6) 하병철 (1995), 「한국인의 직업윤리」, 사회문화연구소.
- 2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2), 「직업생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28) 현대사상교재편찬위원회 (1990), 「현대사회와 윤리」, 학문사.
- 29) 尾高邦雄, 「일본인의 직업윤리」, 광창신역 (199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30)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권세원, 강명규 역 (1958), 일조각.
- 31) 尾高邦雄 (1941), 「직업사회학」, 岩波書店.
- 32) N. Herrick (1981), *The Means and End of Work*, No. 7(Human Relation)
- 33) P. Drucker(1974), *Management.*(N.Y. : Book of Center)
- 34) K. Hoyt (1972), *Carrer Education : What is and How to It* (Salt City :Olympus Publishing Co.)
- 35) K. Parsons (1961), *Theories of Society* (N. Y. : The Firee Press.)

2. 논문

- 1) 박인순(1992),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윤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2) 박태성(1991), “한국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3) 배영기(1990), “직업윤리에 관한교육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원.
- 4) 안응결(1994), “현대 산업사회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5) 윤석진(1990), “현대사회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원.
- 6) 이영주(1984), “한국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원.
- 7) 정희선(1993),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원.
- 8) 천영희(1992), “기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Summary>

The Study of Method to Strengthen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Kang, Won-Il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Zoo

Vocation is the necessary means for modern man to maintain livelihood, and it has the important meaning as the means to realize oneself and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Therefore how to choose rightly the vocation and how to perform it(the vocation) with firm conviction and strong sense of duty are the tasks of vocational ethics as one of important problems of our society.

In this study I tried to seek the method to strengthen and revise the present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in order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of vocational ethics.

When I saw the contents of the recent educational situation of vocational ethics which the students were learning in the school, I found that in high schools the students were learning vocational ethics in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course of national ethics, and in college educational course the college students were learning it(vocational ethics) in the course of general culture education. In Korean society, the educational institute of vocation has the course of vocational ethics. When the enterprises of Korea educate employees for the spiritual education they are learning vocational ethics. The problems which appeared in the recent (present)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in school and society are ignorance and indifference to vocational ethics because of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unsystematic and unreal contents of education, (and) lecture to emphasize only knowledge and quality of lectur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thods to strengthen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are the following ;

At first,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should be emphasized and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school education, vocational ethics should be necessary course which contains social ethics and job guidance.

At second, the contents of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should be composed systematically. The students in schools should listen to more lessons of vocational ethics in which the students as the future workers will be taught the harmony between worker's moral and social influence of worker. In the enterprises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should contain the ethical problems of community life in which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society have cooperative relation.

At third, the real method of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should

be developed. If we create new method of education, it will be good. We should make use of the merit of the traditional method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situations in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of vocational ethics should contain cultivation of ability for value judgement, and practising worker's value in the society and technique of investigation.

Fin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method of vocational ethical education, the institute of vocational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This institute should study and develop the textbook of vocational ethics, the teaching method of vocational ethics. This institute should educate teachers of vocational ethics and should educate fresh teachers of vocational ethics.

